

경기도

성남시, '성남닭죽' 4개월에 8천개 판매



경기도 성남시가 브랜드 음식으로 개발해 시범 판매 중인 '성남 남한산성 인삼닭죽'이 4개월 만에 8천개가 팔리는 등 선전하고 있다.

지난 4월 6일 성남시에 따르면 남한산성 주변 닭죽촌에서 판매하는 닭죽의 맛을 그대로 재현한 '성남 남한산성 인삼닭죽'을 개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에서 시판했다.

285g들이 한 캔에 2천600원에 판매된 닭죽은 지난해 12월 1,315개, 올해 1월 4,032개, 2월 484개, 3월 1,669개가 팔렸다. 시는 하루 평균 64개, 월 평균 1천920개가 팔린 것에 대해 애초의 기대를 뛰어넘는 판매성적이라고 흡족해 하고 있다.

시청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성남 남한산성 인삼 닭죽의 최대 장점은 맛이 좋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다시 찾는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시범판매 중이어서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판매희망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오는 6월까지 시범판매를 한 뒤 소비자 기호, 매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국 판매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천군, 고품질의 안전한 닭고기 생산



연천군 농업 기술센터는 고품질의 안전한 닭고기 생산을 위해 육계분야 사육단계에 해

셋(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도입을 추진한다고 지난 4월 21일 밝혔다.

해셋은 최종 제품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개념이 아니라 식품의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을 중점 관리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예방차원의 위해요소 개념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정P&C연구소와 육계농장 해셋 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컨설팅을 지원받는 기술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육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여부를 접수받아 시범사업농가 및 해셋에 관심 있는 농가 등 총 15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주 1회 4시간씩 10주 과정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나재천 박사 및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임현성 컨설턴트, 정P&G연구소 조판규 컨설턴트 등을 강사로 초빙해 가족사육단계별 HACCP의 개념 및 추진요령, 육계 HACCP 인증요령, 농장유지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양계농가는 앞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책임지도로 개별농장 맞춤형 현장방문



사·도·소·식

교육 등을 받게 되며 HACCP 지정심사 과정뿐 아니라 지정 후에도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이상호 소장은 "사육단계의 HACCP 도입은 위해요소를 제거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에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HACCP 인증을 확대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춘천시, 춘천닭갈비 명품화 사업 추진 법인체 출범

춘천시는 지역 내 양계농가협의회, 닭갈비업소, 원료육 유통업체 등이 현재 사단법인 형태의 법인체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출범할 예정이라고 지난 4월 16일 밝혔다.

춘천닭갈비 명품화 사업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국비 등 30억원을 투자해 닭갈비 브랜드화, 원료육 고급화, 유통체계 표준화 등을 통해 춘천을 대표하는 음식인 닭갈비를 전국적인 향토음식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법인체가 설립되면 올해는 국비 등 10억원을 지원받아 닭갈비 업소 환경개선, 계육유통업체 시설 지원, 홍보사업 등을 실시한다.

특히 지리적 표시제를 위한 단체표장이 출원돼 '춘천닭갈비'를 브랜드화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시는 지난해 명품화 사업을 위해 춘천닭갈비협의회, 춘천육계발전협의회, 강원대 등이 참여하는 닭갈비명품화사업단을 발족, 운영해 왔으며 이번

법인 설립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명품화 사업 법인체는 원료육을 춘천산 계육으로 대체하고 원료육도 무항생제나 기능성 닭고기를 생산해 업소에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닭갈비 연관 산업 종사자가 1,000여명에 달하고 연간 500만마리의 원료육이 지역산으로 대체될 경우 1·2·3차 산업의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수도권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어 춘천의 명품 닭갈비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홍성군, AI 방역활동 강화

최근 동남아시아 일부지역과 중국 일부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홍성군은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막고 관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관내 40여 축산농가를 방문, 철저한 방역을 실시했다.

특히 11개 읍·면 합동점검반을 통해 가축 전염병 발생확률이 높은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활동과 소독활동을 실시하고 300㎡ 이상의 중규모 이상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한 특별 방역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충청북도

제주도와 공동 협력사업 추진

충북도와 제주도가 상호상생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교류협정식은 충청북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양도의 기관·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상공인 인적교류와 청소년 교류, 문화 예술교류, 관광상품 공동마케팅, 재난재해에 대한 복구 지원 등 10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도는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효과발생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으로 청주-제주간 연계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청주공항활성화, 농(수)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청소년 문화이해 교류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단 교류, 협력적 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명품 '농수축 한마당' 행사 개최 등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에 대해 상호 농수축산물 판매코너를 설치, 유통 활성화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상남도

축산식품 제조업소 위생점검 실시

경남도는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각종 모임이나 고성엑스포 등 지역행사에서 축산식품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3일부터 일제 위생점검에 나섰다.

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고성공룡엑스포(3월 27일~6월 7일), 진주 도민체전(4월 30일~5월 3일) 등 각종 행사장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유통업체와 현지 식육판매업소에 대해서도 해당 시·군, 경찰서 및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는 6월 12일 까지 8주간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품목은 햄·소시지, 치즈, 요구르트, 가공유,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과 즉석식품의 경우 허위·과대광고,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사용행위,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영양성분 표시의 적절성, 유통기한을 늘리는 행위 등이다.

경남도는 육류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의 ▲수입산 육류의 원산지 허위표시 ▲값싼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둔갑 판매 ▲등급 속여팔기 ▲값싼 부위로 가짜 삼겹살 및 갈비 제조·판매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로 양념육 제조 및 비위생적 생산제품 등 취약품목을 중점 단속한다.

경남도는 부정·불법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감시가 중요하며 경남도청 축산과 및 시·군 축산담당부서 부정 축산물 신고전화(국번없이 1588-4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 '2009 전염병 업무 관련자 워크숍' 개최

대구시는 A 등 전염병 위기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23일 제이스호텔에서 대구시 관련 시·군·구 전염병 업무 관련자와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포항검역소 대구공항지소 등 전염병 관리 분야 유관기관과 대학교수 등 50여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09 전염병 업무 관련자 워



시·도·소·식

크숍'을 개최했다.

지난해 4월 대구시를 포함한 전국적인 A 발생은 전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시켰으며 닭·오리고기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전염병관리 분야 담당자간의 상호소통과 정보공유의 계기인 워크숍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염병 유행시 원인병원체 규명률 향상 등 현장 역학조사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요원 직무교육'과 전년도 사례발표를 통해 기관간 전염병예방활동 정보공유를 위한 방역모의훈련 등이 있다.

특히 방역모의훈련은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등 4개 보건소에서 생물테러, A 인체감염 예방 조치, 집단설사환자 발생에 따른 대책 및 구·군 역학조사반의 대응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2008년 대구지역 전염병 발생양상 분석보고 등으로 실시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전염병 위기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3~4시간의 일정으로 소규모 방역모의훈련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역학조사요원 직무교육을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1일간의 일정으로 그 규모를 확대·편성한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염병 관리 분야 유관기관과 상호소통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전년도 A 발생과 같은 사회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어지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기여하고자 금번과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포항시, 축산농가 경쟁력 위해 최대한 지원

박승호 포항시장장은 지난 4월 22일 포항시 북구 신평면 우각리 최주야씨 농장을 방문해 "축산농가의 경쟁력이 포항의 또 다른 경쟁력이라며 축산농가 지원에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제소독의 날'을 맞아 축산농민들과 함께 1시간동안 축사 소독 활동을 벌인 박시장은 농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농민들로부터 내구연한이 다된 청소차량을 조사료 사업단의 퇴분운반차량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석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내구연한이 다된 청소차량은 전국의 업자들을 대상으로 경매를 하고 있는데 이 바람에 농가가 차량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사료배합기 보조비율이 현재 50%대인데 80%로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축산농민들이 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지난해 영천, 경산 등 인근지역에서 A 등이 발생해 많은 가축들이 살처분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며 "지난 3월부터 국가위기 '관심' 단계 발령이 내려진 만큼 가축 전염병 예방에 축산 농가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소독활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농가에서도 포항시의 브랜드를 하나 더 만들고 높인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남도

FTA 대비 중·장기대책 추진

전남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전남도는 한·미 FTA 비준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관세철폐기간 15년간 총 1조2,870억원, 연평균 860억원의 농업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도가 분석한 '한·미·FTA농업부문 피해추정 결과'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되면 전국 농업생산이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6,698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한우 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앞으로 국회 비준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생명식품 5개년 계획을 비롯해 친환경 축산·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임실군, 농업경영컨설팅에 2억5천만원 지원

임실군은 농업인들의 경영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농업경영컨설팅을 위해 올해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농가에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 4월 14일 밝혔다.

농업인의 경영상 문제점을 진단·개선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한 이번 사업은 농작물을 단순히 재배·판매하는 단계를 탈피해 자기혁신을 통한 농업경영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른 지원분야는 원예와 특작, 축산 및 친환경농업 등이며 사업계획 수립을 비롯해 생산과 판매관리, 가공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을 펼치게 된다.

지원금은 개별농가의 경우 800만원까지이고, 농업법인과 농산물가공업체는 1억원이며 보조 70%에 자부담은 30%다.

제주도

약취발생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제주도는 지난 4월 6일 축산농가 및 가족분뇨 재활용업체, 유기질 비료제조공장 등 약취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시 환경·축정부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액비 부속상태 확인, 액비살포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전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약취 측정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시범 및 행정 조치와 함께 도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약취발생 업체를 점검, 40건을 적발해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